

사람과 사람사이



농민신문 최인석 기자에 감사패 전달



임연화 회장은 구랍 31일 6만여 생약생산농민들을 대신해서 농민신문 최인석 기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인석 기자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생약살리기와 국내생약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해 왔으며 특히

98년 8월28일자부터 7회에 걸쳐 '긴급진단 벼랑에 몰린 생약농사' 기획물을 심층보도함으로써 우리 한약재를 보호 육성하자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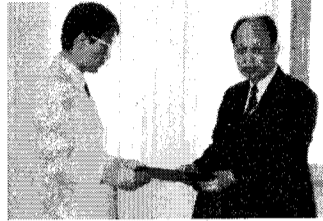
정형모 부회장 대통령 표창

정형모 부회장(전라남도 지부장)은 지난 30여년간 생약농업에 몸 담아 오면서 국내 생약생산 기반조성과 우리생약살리기에 앞장서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구랍 31일 대통령표창을 수상



했다. 정부회장은 약초재배가 일반화돼 있지 않던 전남일원 지역에 작약, 우슬, 백지, 방풍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지도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 특히 삼도시호를 생산농민과 계약재배,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해옴으로서 국산약재의 품질 우수성 홍보는 물론 외화획득에도 큰 몫을 해 왔다. 현재 협회 부회장과 전라남도 지부장직을 겸하고 있는 정부회장은 생약농업육성에 대한 남다른 신념과 추진력을 겸비한 울곧은 생약인의 표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생협회원 진료비 20% 할인 전북지부 원광대 한방병원과 계약 생약협회 전라북도지부 (지부장·이승엽)는 12월21일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과 진료우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부 산하 협회회원은 물론 타지역의 경우라도 생약협회 회원 및 그 가족에 한해서는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20%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경북도지부 송년회

경북도지부(지부장·배성환)는 12월 26일 영천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산하회원들이 친목을 다졌다.

인사

「任」

△중앙본부 사무국 총무부 대리 이인찬(98년 12월7일부) △서울시 구로구 공판장장 이정혜 △경기도 양주군 사무소장 강인영(98년 11월25일부)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사무소장 장보원(98년 12월 11일부)

「免」

△중앙본부 사무국 총무부 대리 이정선(98년 12월 22일부)

내방

△정형모 부회장 △이문섭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허성무 부회장 △김동균 고문 △박영임 이사 △염경섭 이사 △신현석 사무소장 △김운호 사무소장 △정일영 사무소장 △박철규 사무소장

... 농림부장관상 시상자들 프로필 ...

구랍 31일 한국생약협회 회의실에서는 그동안 생약농업 발전과 우리생약살리기에 공이 큰 생약재배 농민 및 산하 회원들에게 농림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표창받은 생약인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로개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생약생산지도자임. 우리생약살리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옴.

강삼석 김제시 사무소장
▲1937년생
▲입회년도:1979년생
▲공적사항: 주요 생약재 주산단지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가공방법을 포함한 재배교육등의 지도와 국산약재 관

김시부 삼척시 사무소장
▲1936년생
▲입회년도:1977년
▲공적사항: 지난77년 이래 강원도 삼척군 출장소 및 사무소장을 역임하면서 생약재배지도와 수집 및 판로개척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내 생약생산 기반조성에 기여한 소신있는 생약생산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음.

김운호 영동군 사무소장
▲1937년생
▲입회년도:1978년
▲공적사항: 영동군 일대 복령, 백출, 하수오, 세신, 속단등 자연산 약초 채취 독려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천궁, 작양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순화재배하여 생약집단지 조성에 성공. 약초재배 교육을 통하여 생약농민들이 질 좋은 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옴.



박철규 영양군 사무소장
▲1952년생 ▲입회년도:1991년 ▲공적사항:20



여년간 생약재배 및 수매가공사업에 몸담아온 경험으로 영양지역에 일천궁 재배를 지도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큼. 가공공장을 설립 고 품질의 일천궁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음.

정일영 구례군 사무소장
▲1929년생
▲입회년도:1976년
▲공적사항:3백여 생산농가 회원을 조성 구례군 생약재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계약



재배 및 수매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연15만근 정도의 산수유를 생산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해외수출로 우리생약살리기에 앞장서옴.

최동진 당진군 사무소장
▲1939년생
▲입회년도:1980년
▲공적사항: 지난 80년 본회 당진군 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농가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서해안 지역 특산품인 방풍, 일당귀, 우슬반하등의 재배교육 지도와 수집 및 유통에 전념하고 있는 서해안지역의 지도자이다.



을 조성 구례군 생약재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계약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혜택:1. 생약재배기술지도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회비:

개인-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단체-13만원(연회비 12만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람에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키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우체국 010983-0006910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